



스타트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스타트업(Startup)

초기 창업기업, 즉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쿠팡, 아놀자, 쏘카 그리고 위메프 등이 있다.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같다. 성장가능성이 보이는 초기창업자를 선발해 투자와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2012년 출범한 스파크랩이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로, 미미박스과 망고플레이트 등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했다.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

악어·해파리 떼가 가득한 호주 북부 해변을 의미하는 말로 신제품 양산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경쟁하며 이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스타트업 업계에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즉, 기업이 아이디어·기술 사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데모데이(Demo Day)

본래 실리콘밸리에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외부 투자자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들에게 발표하는 행사를 이르는 포괄적인 말로 쓰이고 있다.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

문샷씽킹이란, 달에 로켓을 보내려는 것처럼 새로운 문제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의 개선보다 10배 혁신하게 하는 급진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유니콘 클럽(Unicorn Club)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중국의 사오미, 디디추싱, 한국의 쿠팡 등이 있다.



엔젤투자자

엔젤투자자는 초기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을 말한다. 창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엔젤투자자에게 지원을 받아 회사를 세우고, 이후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 창업자 입장에서 '천사'같은 투자자라고 느껴진다 하여 엔젤투자자라고 불리게 됐다.

피벗(Pivot)

피벗이란, 스타트업이 신제품을 출시 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사업모델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카피캣(CopyCat)

잘 나가는 스타트업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사오미의 경우가 미국 애플사의 카피캣이라 불렸던 대표적 사례다.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위험성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예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벤처캐피탈이라고 한다. 보통 자금 융통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 형태로 투자된 자금을 뜻한다.

2018년, 당신의 시작을 응원해줄 따뜻한 한마디!

하고 싶은 거 다해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배우 김부선이 권상우에게 던진 대사로 유명해진 말이다. 이 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 이나(문 대통령의 별명)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응용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주 칭찬해

JTBC '아는형님'은 2017년 가장 핫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게스트였던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와 이야기하던 중, 그의 말에 감동받은 강호동이 "칭찬해"라고 말한 것이 시작이 돼 "이주 칭찬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꽃길만 걸자

'꽃길만 걸자'라는 말은,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프로듀스101'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였던 가수 김세정이 인터뷰에서 어머니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말을 하면서 대중화됐다. 이후 가수 데이브레이크는 정규 4집 앨범에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제목으로 타이틀 곡을 선정했고, 가수 김세정은 '꽃길'이란 제목의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다. 두 곡 다 꽃길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와 분위기를 담고 있어 비교해 듣는 재미를 준다.

